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eTrust 인증 5년 연속 획득



▶ 채용달 기획부장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대표하여 e Trust 인증서를 받고 있다.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은 지난 2006년 10월 17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이 공동주최 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제4회 eTrust 인증서 수여식”에서 서비스부문에 5년 연속 eTrust 인증을 획득했다.

이날 (주)설비넷, (주)CJ홈쇼핑 등 19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5년간 eTrust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식적으

로 인정받았다.

한영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eTrust 인증업체의 혜택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는 물론 TV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며 “eTrust 인증업체가 더욱 번창하여 다른 인터넷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eTrust 인증은 사이버몰 운영 시 정확한 상품정보의 제공,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등이 타 업체보다 우수하게 평가된 업체에게 수여된다. ●

# 신용분석 교육과정을 마치고

서부지점 5급 안재준

**신용** 평가업무가 나의 주업무는 아니지만 조합원이 제출하는 재무자료를 가지고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메커니즘은 본사 전산실 근무 때부터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주업무가 아니라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다.

지점 발령 후 신용분석과정 교육의 기회가 왔었으나, 발령 받자마자 교육을 갈 수가 없어 늘 아쉬움이 남았었다. 그런데 올해 그 교육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지면을 빌어 교육의 기회를 준 관련부서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교육전 연수원 담당자와의 전화통화(기초과정 이수 여부와 신용분석업무 담당인지 확인하는)와 빠빠한 교육스케줄을 받고 보니 쉬운 교육과정이 아님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교육장소인 한국금융연수원에 입교를 한 후 짧은 OT시간에 과정설명을 듣고 같이 수업을 듣게 된 동기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수험생의 심정으로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다잡고 입교했지만, 첫 시간부터 수준 높은 수업(회계 관련 과목을 이론적으로 처음 접하는 관계로)에 첫 1주일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해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다. 1주, 2주가 지나가면서 뜬구름처럼 보였던 신용분석이라는 메커니즘이 서서히 체계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

다. 다행히 짝꿍이 회계학과 출신 은행원이라 같이 공부하며 도움을 많이 주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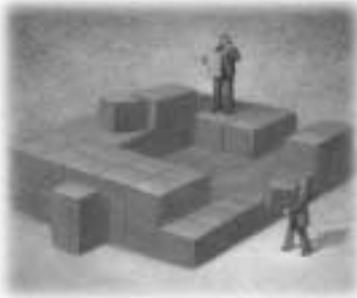
신용분석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숫자의 나열인 재무자료들을 가지고 해당 기업을 분석하고 추정하는 과정이 신비롭고 재미있었다. 특히 마지막 종합사례에서는

실제 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가지고 분석·심사하여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과정이었었는데 B/S와 I/S상으로 우량해 보였던 기업이 분석결과 실질은 불량으로 심사되어 대출 기각, 기존 여신 회수 또는 추가 담보확보를 하여야 하는 결론이 난 것을 보고 우리 조합에서 이용하는 신용분석시스템에 이런 분

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거나 보조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 싶었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 끝나감에 따른 많은 아쉬움과 교육으로 얻어가는 지식의 뿌듯함이 교차했다. 입교 전에 사전 준비를 해서 좀 더 심도있는 수업참여를 못한 것과 빠빠한 수업일정 때문에 동기생들과의 적은 교류가 아쉬웠다. 또 입교 전부터 궁금했던 신용분석의 메커니즘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뿌듯했다.

이런 기회를 준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해 주길 바란다. ◉



# 신용분석 교육과정을 마치고

부산지점 7급 전 지선

**신용** 분석교육을 신청한 후 먼저 이수한 주위의 선배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해 물어보니 사전에 기초과정을 수료하였는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회계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기초과정도 수료하지 않은 나로서는 많은 걱정이 밀려왔었다.

걱정하고 있는 내게 몇몇 선배분께서 연수원과정에 대해 조언도 해주시고 기초가 될 만한 책을 읽어보라며 권해주셨다. 지점에서 세무회계 온라인강의도 들어보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해나갔으나 업무와 병행하려니 그 또한 어려움이 많았다.

기대와 긴장을 가지고 시작한 연수원에서의 첫날, '이왕 하기로 한 거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뻑뻑한 일정의 시간표와 많은 교과목들, 그리고 같이 연수받는 타 금융기관 연수생들 중 CPA도 있다는 말에 연수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엄습했다.

2주 정도 지나자 타 기관 연수생들과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점차 연수원에 적응해 나갔다. 입사 이후 이렇게 공부해본 경험이 없기에 시작은 순조롭지 않

았으나 수업시간에 충실했고, 타이트한 연수과정에 예습보다는 복습위주로 공부를 해나갔다.

많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한 교육이었기에 보람도 있었고 금융연수원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통한 교육과정에서 많이 배웠다. 또 타 금융기관 연수생들과 대화

를 나누면서 보다 많은 교육의 필요성도 느끼고 자극도 많이 받아 자기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실력향상은 물론 회사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과정에서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무적인 부분을 좀

더 비중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연수를 시작하면서의 떨림과 비전공자로서의 어려움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8주간의 공부'란 동행자를 보내고 나니 왠지 허전함이 느껴진다.

나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 '그 무엇' 인가를 또 다시 찾으려 해야겠다. '그 무엇' 인가가 '무엇' 일지는 모르겠지만 해답은 언제나 내가 찾아야겠기에. ☺

